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GETR(글로벌기업가정신트렌드리포트)자료를 중심으로*

박재 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김봉문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장)***

김용태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고용 침체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의인재 육성을 국가적 최우선 전략 과제로 제시하며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벤처중소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201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GETR)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참여한 10개국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성요소를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효과 및 창업환경은 개인과 조직의 기업가정신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효과, 창업 환경, 개인의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생계형보다 기회형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조직 기업가정신은 창업유형(생계 /기회형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및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창업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으로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요구되며, 우호적인 창업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기업가정신 교육 및 생태계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교육효과, 창업환경, 창업유형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년 고용의 어려움과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혁신 등은 융합기술의 발전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은 높일 수 있지만 자칫 신규 산업의 창출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총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가 살아나도 회복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실업이 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요 선진국은 계속되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신(新)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고취와 창의인재 육성을 국가적인 최우선 전략 과제로 내세우며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가정신 고취를 국가혁신전략의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초·중·고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규교과과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대기업과 창업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일찌감치 의무화하고, 평생교육의 핵심능력으로 기업가정신 고취를 추진해오고 있다(김용태, 2017; 이윤준 외, 2014; 양준환, 2017).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국내 기업가정신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국제적 지표 조사에서 기업가정신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OECD 기업가정신 지수조사(GEI)에서 우리나라는 28위(15년 기준)를 기록하는 등 일본, 싱가포르 등 같은 혁신주도 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에 비해 특히 생계형 창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글로벌 기업 앰배서가 조사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리포트(AGER)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51점) 및 아시아 평균(64점)보다도 낮은 44점으로 조사대상 44개국 중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중소기업청)의 재원으로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임.

** 제1저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jayppark@cau.ac.kr

*** 참여저자,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kbdoor@nrf.re.kr

**** 교신저자,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ytkim@nsu.ac.kr

· 투고일: 2017-11-10 · 수정일: · 게재확정일: 2017-12-01

28위에 그치고 있다(정구혁·이병헌, 2017).

이에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부)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국내 기업가정신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주요 국가간 비교를 통해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부터 전 세계 20여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기업가정신트렌드리포트(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이하 GETR)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 활성화 요인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뤄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2015년에 진행된 기초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의 구성항목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간 구성 항목을 임의로 단순 비교하는 초기 단계의 수준이었다. 또한 2016년 조사에서도 타당성이 낮거나 오류가 발견된 일부 설문 항목의 경우 제외되거나 수정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변수들과 측정항목의 경우 2015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및 2016년 글로벌기업가정신 트렌드리포트(GETR)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가정신 함양과 생태계 활성화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특히 2개년 간 참여한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간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를 비교,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분석에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교육 및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국내·외 기업가정신 지수 선행연구

2.1.1 글로벌기업가정신 모니터(GEM)

1999년부터 런던경영대학과 밥슨칼리지가 매년 공동조사 및 발표하고 있는 지수로 조사 대상국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문가 조사(NPS: National Expert Survey)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활동 조사(APS: Adult Population Survey)로 진행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6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가정신 조사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조사 항목으로는 창업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부지원, 공공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창업교육 및 훈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인프라, 시장진입 규제, 인프라, 문화 사회적 규범 등의 총 12가지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태도와 관련된 7가지 지표와 기업가적 활동지표 11가지를 포함하여 총 18가지 지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이 중요해지면서 일자리창출지표가 추가되었다.

<표 1> 글로벌기업가정신 모니터 측정항목

항목	측정항목
창업가적 태도	기회인식 정도 / 역량인식 정도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창업에 대한 인식 /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하는 태도 / 기업가를 높이 평가하는 정도 /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언론의 관심
창업가적 활동	초기 창업활동지수(TEA) / 중견기업 비율(42개월 이상 유지기업 비율) / 사업 중단 비율(12개월 이내 폐업 비율) / 일자리 창출 비율(EEA) / 사회적 기업 창업비율(SEA) / 창업활성화 정도(기회인식 창업 대비 생계형 창업 비율) / 여성창업비율(여성창업 대비 남성창업 비율) / 여성기회창업비율(여성 기회창업 대비 남성기회 창업 비율) / 높은 일자리창출 비율(6명 이상 고용 비율) / 혁신 창업비율 / 4차 산업 창업비율

자료출처: BABSON et.al.(2016)

2.1.2 세계 기업가정신 발전지수(GEDI)

세계 기업가정신발전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dex, 이하 GEDI)는 앞서 살펴본 GEM의 조사 모형을 따르고 있지만 기업가정신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기반하여 해당 국가별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국가별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여 기업가정신 환경의 강점 및 약점을 진단하고, 기업가정신의 장애요인과 보완점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조사항목은 기업가적 태도 5개, 능력 4개, 열망 5개 등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4개의 항목은 제도적, 개인적 변수로 다시 세분화되어 진다. GEDI의 지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경제자유지수, 세계은행 창업환경지수 등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기업가정신 모니터(GEM)의 TEA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기업가적 활동의 단기적 성장세를 나타내는 TEA에 비해 GEDI의 기업가정신지수는 질적인 장기적 성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GEDI는 글로벌기업가정신 모니터 지수의 보완재로 활용되고 있다 (GEDI, 2016).

2.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가정신 지수

OECD는 2011년부터 매년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at a Glance)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조사대상 국가의 기업가정신 현황뿐 아니라, 기업가정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즉 기업가정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과도 측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성과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과 생존, 고용창출 등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포괄적인 기업가적 성과 또한 포함하고 있다.

기업가적 성과지표는 기업 활동, 일자리창출, 경제적 부의 창출 등으로 분류된다. 기업 활동분야는 창업기업 및 폐업기업의 수, 자영업자의 비율, 창업율과 폐업율, 기업 생존율 등을 조사한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고정장기업 비중, 창업 고용창출과 폐업으로 생긴 고용감소, 생존기업에 의한 고용 창출 및 감소 등을 측정한다. 경제적 부의 창출 항목으로는

신생기업의 부가가치, 혁신성과 생산성, 수출액 등의 성과지표들을 포함하여 발표되고 있다.

2.1.4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

최근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활동은 비교적 높지만 내용면에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발표한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 분석에 따르면 26개 조사국가중 한국은 16위로 중위권 이하로 발표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대상 국가별 창업환경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로축으로 창업가, 창업환경, 창업성과를 표시하고, 가로축으로는 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 프레임을 설정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업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지수 체계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군집분석을 통하여 기업가정신 지수 패턴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비즈니스 친화형 국가들은 기업의 성장과 제도전, 창업환경 측면의 규제, 시장, 금융환경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반면에 교육 및 지식 인프라, 능력 개발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창업국가형 국가는 성장 또는 실패, 제도전 보다는 지식 인프라, 역량 개발과 교육, 문화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아울러 창업국가형 국가는 우호적인 기업 활동 환경을 유지하면서 제도적, 문화적으로 창업을 촉진하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은 모든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침체형/후발추격형 국가이다. 반면에 이들 국가의 창업성과 지표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국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창업환경은 비록 나쁘지만 창업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 창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침체형/후발 추격형으로 분류되며, 전체적인 창업활동의 양은 많지만 기술창업분야가 적고 생계형 창업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가들의 창업준비 역량 및 창업 기회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대기업 친화적인 기업 환경 및 창업관련 지식기반 및 인프라가 낮다고 분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점은 기업가정신 활동으로 인한 창업이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에게 집중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형 창업이 아닌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가정신 생태계 연구를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지수가 높은 것이 약점이며, 창업 준비 및 초기 창업단계의 기업가정신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지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경우 공통적으로 생계형 창업이 매우 높고 기술창업 등의 기회형 창업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국가별 기업가정신지수 패턴에 따른 유형

유형	국가
비즈니스친화형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독일
창업국가형	스위스, 대만, 미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침체형/후발추격형	프랑스, 한국, 슬로베니아, 중국, 일본, 포르투갈, 멕시코,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자료출처: 이윤준 외(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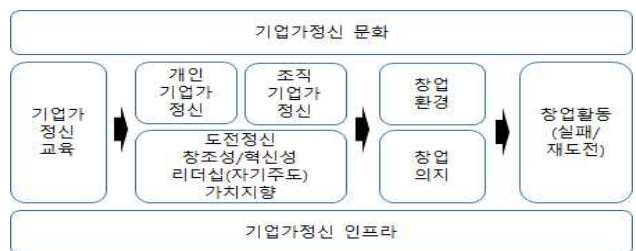
2.2 글로벌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ETR)

2.2.1 GETR 개요 및 측정요소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기업가정신 지수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개인이 보유한 기업가적 역량, 혁신성, 친취적 등과 같이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인들이 지수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수들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및 법·제도적 여건, 창업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창업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기존 지수들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창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 및 기술창업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글로벌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ETR)’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수체계와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2014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GETR은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기업가정신 발현 및 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과 상호 관계를 아래와 같은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정구혁·이병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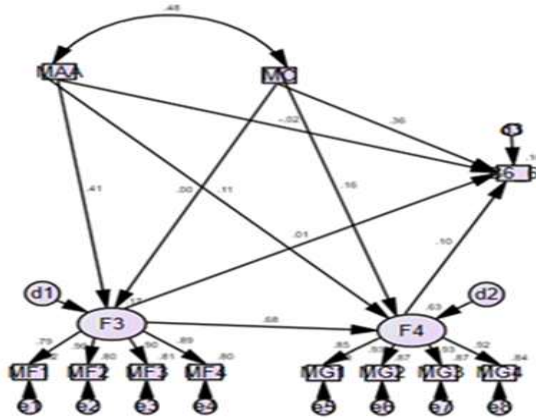
<그림 1> GETR 개념모델

GETR에서는 기업가정신 측정을 위해 개인 및 조직차원의 인성적 특성, 행동적 특성, 가치 및 신념 등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 및 조직차원의 기업가정신 하위변수로 도전정신, 창조성/혁신성, 리더십(자기 주도성), 가치 지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영향요인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은 초·중고 과정, 대학 과정, 직업교육/평생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기업가정신 문화와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

III. 실증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GETR의 표본 가운데 2년 연속으로 조사에 참여한 10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남아공, 영국, 독일, 미국)의 결측값을 제외한 4,441개의 표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기업가정신 지수에 관한 선행연구와 GETR 측정변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성, 창업환경, 개인 및 조직 기업가정신과 창업 유형(생계형/기회형)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론적 배경과 GETR 측정변수를 활용한 연구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 모형

MAA :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 MC : 창업환경 F3 : 개인 기업가정신, F4 : 조직 기업가정신, B6_6 : 창업유형(생계형/기회형 창업)

3.2 자료수집 및 측정변수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한 기업가정신 교육효과(MAA)는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직업교육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기업가정신 관련 수업을 들은 경우 도움이 되는 정도이고, 경험이 여러번 있는 경우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창업환경(MC)은 창업용이성, 부과 세금 규모의 적절성,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효과, 창업후 생존 용이성, 정부의 독과점/담합 규제 효과, 해외시장진출 용이성, 정부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효과,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투자유치 용이성, 상장·M&A를 통한 투자회수 용이성, 정부지원금의 창업자금 조달 용이성, 창업보육센터 입주 용이성, 창업보육센터 입주 효과, 외부로부터 기술이전 용이성 항목들의 평균값이며, 각각 항목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경우 결측이기 때문에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개인 기업가정신(F3) 및 조직 기업가정신(F4)는 개인 및 조직의 도전정신, 창조/혁신, 리더십, 가치지향의 각각 문항을 평균을 이용하여 합산하고 합산된 4개 항목(e.g., MF1-MF4, MG1-MG4)을 이용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생계형/기회형창업은 기회형창업에 가까울수록 큰 값을 갖는 7점 척도이고, 창업의향은 창업의향이 강할수록 큰 값을 갖는 7점 척도이다.

IV. 연구분석 결과

4.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는 개인 기업가정신과 조직 기업가정신이 이용되었다. 따라서, 두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검증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집중타당성 검증으로는 요인부하량의 크기 및 유의도, AVE 값과 개념신뢰도를 이용하여 테스트하고, 판별타당성 검증으로는 AVE와 상관계수의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 상관계수의 $\pm 2 \times S.E.$ 범위를 이용하였다.¹⁾

먼저 개인 기업가정신의 요인 부하량은 최하 0.808부터 0.891 사이에 분포하며 유의수준으로서 C.R.값이 70을 넘기 때문에 검증에서 요구하는 양호한 수준(요인 부하량 0.7, C.R. 1.965)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조직 기업가정신의 요인 부하량은 최하 0.855부터 0.941 사이에 분포하며 유의수준으로서 C.R. 값이 89를 넘기 때문에 개인 기업가정신 잠재변수보다 집중타당성이 더욱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을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AVE 값은 0.5 이상이면,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개인 기업가정신의 경우 AVE 값이 0.764, 개념 신뢰도는 0.928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조직 기업가정신의 경우 각각 0.802, 0.942를 나타내어 요인 부하량을 이용한 검증에서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표 3> 요인분석

		S.E	C.R.	P	AVE	개념 신뢰도
가치추구	<---> 기업가정신 (개인)	-	-	-	0.764	0.928
리더십	<---> 기업가정신 (개인)	0.012	81.841	***		
창조/혁신	<---> 기업가정신 (개인)	0.012	86.07	***		
개인도전	<---> 기업가정신 (개인)	0.013	70.965	***		
가치추구	<---> 기업가정신 (조직)	-	-	-	0.802	0.942
리더십	<---> 기업가정신 (조직)	0.009	114.29	***		
창조/혁신	<---> 기업가정신 (조직)	0.009	120.274	***		
개인도전	<---> 기업가정신 (조직)	0.01	89.633	***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잠재변수들의 AVE 값과 두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제곱(ρ^2)을 비교한다. 개인

1) 본 연구의 표본 수로 인하여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의 카이제곱 차이를 이용한 판별타당성 검증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χ^2/df 는 7.136으로 5% 신뢰수준의 3.84보다 크게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잠재변수와 조직 기업가정신 잠재변수의 상관계수(φ)는 0.687, $\varphi^2=0.472$ 로 나타났다. 개인 기업가정신 $AVE=0.764$, 조직기업가정신 $AVE=0.802$ 이기 때문에 모두 φ 2(0.472)보다 크다.

다음으로 두 잠재변수의 상관계수의 범위($\pm 2 \times S.E.$)를 이용한다. 상관계수(φ^2)에서 2표준오차($2 \times S.E.$)를 차감한 값은 0.651($0.687 - 2 \times 0.018$)로 0보다 크고, 2표준오차($2 \times S.E.$)를 더한 값은 0.723($0.687 + 2 \times 0.018$)로 1보다 작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모형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전체표본과 국가별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대부분 적합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절대적합지수는 대표본에 따른 검증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용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모형적합도

[Panel A] 전체표본(n=4,441)		
적합지수	구조모형	수용(비람직)수준
절대 적합 지수	CMIN/DF	$\leq 3(\leq 2)$
	RMR	(≤ 0.05)
	GFI	(≥ 0.9)
	AGFI	(≥ 0.9)
	RMSEA	$\leq 0.08(\leq 0.05)$
상대 적합 지수	NFI(Delta1)	(≥ 0.9)
	RFI(rho1)	(≥ 0.9)
	IFI(Delta2)	(≥ 0.9)
	TLI(rho2)	(≥ 0.9)
	CFI	(≥ 0.9)
[Panel B] 국가별		
적합지수	구조모형	수용(비람직)수준
절대 적합 지수	CMIN/DF	$\leq 3(\leq 2)$
	RMR	(≤ 0.05)
	GFI	(≥ 0.9)
	AGFI	(≥ 0.9)
	RMSEA	$\leq 0.08(\leq 0.05)$
상대 적합 지수	NFI(Delta1)	(≥ 0.9)
	RFI(rho1)	(≥ 0.9)
	IFI(Delta2)	(≥ 0.9)
	TLI(rho2)	(≥ 0.9)
	CFI	(≥ 0.9)

4.3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표 5>는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이며, <표 6>은 국가별 모형 적합도를 요약한 결과이다.

<표 5> 전체 표본 모형적합도

측정변수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value
F3 ← 교육효과	0.334	0.482	0.010	32.945	***
F3 ← 창업환경	0.053	0.074	0.010	5.207	***
F4 ← 교육효과	0.052	0.060	0.010	5.011	***
F4 ← 창업환경	0.088	0.099	0.009	9.456	***
F4 ← F3	0.931	0.744	0.017	53.829	***
생계기회 ← 교육효과	0.128	0.099	0.022	5.923	***
생계기회 ← 창업환경	0.316	0.237	0.020	16.029	***
생계기회 ← F3	0.404	0.215	0.051	7.954	***
생계기회 ← F4	-0.036	-0.024	0.039	-0.917	0.359

<표 6> 국가별 모형적합도 요약

국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측정변수	est.	p	est.	p	est.	p	est.	p	est.	p
F3 교육효과	0.410	***	0.861	***	0.445	***	0.437	***	0.460	***
F3 창업환경	0.002	0.974	-0.190	0.132	0.145	***	0.121	***	0.174	***
F4 교육효과	0.111	**	-0.284	***	0.062	***	0.022	0.385	0.072	**
F4 창업환경	0.161	***	0.224	***	0.055	***	0.026	0.190	0.110	***
F4 F3	0.681	***	1.037	***	0.848	***	0.968	***	0.800	***
생계기회 교육효과	-0.016	0.804	-0.171	0.518	0.073	*	0.068	0.369	0.181	***
생계기회 창업환경	0.361	***	-0.075	0.704	0.164	***	0.487	***	0.216	***
생계기회 F3	0.010	0.912	0.650	0.161	0.243	***	0.977	***	0.433	***
생계기회 F4	-0.024	0.359	-0.134	0.737	-0.096	0.281	-0.366	0.113	-0.304	**
국가	브라질	남아공	영국	독일	미국					
측정변수	est.	p	est.	p	est.	p	est.	p	est.	p
F3 교육효과	0.371	***	0.241	***	0.502	***	0.319	***	0.569	***
F3 창업환경	0.100	***	-0.080	*	0.283	***	-0.003	0.959	0.254	***
F4 교육효과	0.070	***	0.033	0.315	0.099	**	-0.011	0.820	0.012	0.767
F4 창업환경	0.119	***	0.070	**	0.036	0.339	0.199	***	0.036	0.266
F4 F3	0.772	***	0.708	***	0.844	***	0.290	***	0.886	***
생계기회 교육효과	0.214	***	-0.002	0.963	0.173	**	-0.012	0.812	0.183	***
생계기회 창업환경	0.144	***	0.172	***	0.234	***	0.246	***	0.278	***
생계기회 F3	0.156	**	0.109	0.104	0.099	0.603	0.229	***	0.165	0.280
생계기회 F4	-0.03	0.677	0.029	0.651	0.125	0.517	0.001	0.982	0.005	0.970

분석결과를 예측과 대부분 일치하여 계수값들이 유의한 양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가정신 교육효과 및 창업 환경이 개인과 조직의 기업가정신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효과, 창업환경, 개인의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생계형보다 기회형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조직의 기업가정신은 생계/기회형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4.4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GETR의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실제 World Economic Forum(WEF)에서 조사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변수 중 규제체제, 시장조건, 지식창조 및 확산의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세부 지수들을 핸드컬렉팅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제도적 수준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7> 조절효과에 사용된 국가경쟁지수 정의

구성개념	측정지표	설명
규제체제	재산권	1.01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	1.02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정치인 신뢰	1.04 Public trust in politicians
	정부규제 부담	1.09 Burden of government regulation
	정부정책의 투명성	1.12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making
시장조건	투자자보호	1.21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사회간접자본 수준	2.01 Quality of overall infrastructure
	국내시장 규모	6.02 Extent of market dominance
	반독점법 유효성	6.03 Effectiveness of anti-monopoly policy
	무역장벽	6.09 Prevalence of non-tariff barriers
	구매자 수준	6.16 Buyer sophistication
	노사관계	7.01 Cooperation in labor-employer relations
지식창조 및 확산	해고자유시장 지배력	7.03 Hiring and firing practices
	교육제도 질적 수준	5.03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수학/과학교육의 질	5.04 Quality of math and science education
	혁신역량	12.01 Capacity for innovation
	과학연구기관 수준	12.02 Quality of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s
	기업의 R&D 지출	12.03 Company spending on R&D
	산학협동	12.04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 R&D
고기술제품 정부조달	12.05 Gov't procurement of advanced tech. products	

<표 8> WEF 국가경쟁력 지수 요약

구성개념	한국	일본	인도	중국	싱가포르
규제	4.267(9)	5.333(4)	4.733(6)	4.333(8)	6.533(1)
시장조건	4.325(8)	5.213(3)	4.713(7)	4.738(6)	5.450(1)
지식확산	4.329(8)	4.971(5)	4.514(6)	4.400(7)	5.529(1)
종합	4.310(8)	5.167(5)	4.652(6)	4.510(7)	5.786(1)
구성개념	브라질	남아공	영국	독일	미국
규제	3.467(10)	4.667(7)	5.783(2)	5.35(3)	5.217(5)
시장조건	3.638(10)	4.038(9)	5.163(4)	4.963(5)	5.350(2)
지식확산	3.114(10)	3.700(9)	5.057(4)	5.357(2)	5.343(3)
종합	3.414(10)	4.105(9)	5.305(3)	5.205(4)	5.310(2)

조절효과 분석결과 기업가정신 교육효과가 개인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창업환경이 개인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수준이 높은(HIGH)국가에서 유의하게(5% 유의수준에서 1.965보다 큼) 크게 나타났다. 개인 기업가정신이 기회형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두 그룹간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효과나 창업환경이 기회형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조절효과 분석결과(상하위 50%)*

*싱가포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브라질, 남아공, 한국, 중국, 인도

		LOW(L)		HIGH(H)		(L)-(H)
		표준화 계수	p-value	표준화 계수	p-value	
F3	< 교육도움	0.451	0.013	0.488	***	-0.927
F3	< 창업환경	0.042	0.013	0.180	***	-4.353***
F4	< 교육도움	0.060	0.011	0.045	0.066	0.398
F4	< 창업환경	0.097	0.010	0.182	***	-3.661***
F4	< F3	0.798	0.019	0.619	***	3.662***
생계/기회형	< 교육도움	0.116	0.028	0.075	0.013	1.659
생계/기회형	< 창업환경	0.205	0.026	0.248	***	0.111
생계/기회형	< F3	0.207	0.076	0.244	***	-0.112
생계/기회형	< F4	-0.017	0.062	-0.015	0.688	-0.032

<표 10> 조절효과 분석결과(상하위 20%)*

*싱가포르, 미국/ 브라질, 남아공

		LOW(L)		HIGH(H)		(L)-(H)
		표준화 계수	p-value	표준화 계수	p-value	
F3	< 교육도움	0.308	***	0.530	***	-5.576***
F3	< 창업환경	0.031	0.275	0.230	***	-4.315***
F4	< 교육도움	0.051	0.013	0.049	0.064	0.153
F4	< 창업환경	0.109	***	0.069	0.002	1.987**
F4	< F3	0.759	***	0.838	***	0.287
생계/기회형	< 교육도움	0.106	***	0.167	***	-0.849
생계/기회형	< 창업환경	0.201	***	0.257	***	0.192
생계/기회형	< F3	0.120	0.017	0.313	0.001	-1.466
생계/기회형	< F4	0.002	0.967	-0.154	0.100	1.446

V.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수행한 글로벌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ETR)데이터를 바탕으로 참여 국가별 기업가정신 교육효과, 개인 및 조직 기업가정신, 창업 환경, 창업 유형(생계/기회형)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비교·검증함으로써 국내 기업가정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교육효과가 개인 및 조직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참여가 개인의 기업가정신

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혁신적인 조직 내 기업가정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이 특정한 교육과정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와 대학 등을 거쳐 평생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창업환경이 개인 및 조직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창업용이성, 부과 세금 규모의 적절성,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효과, 창업 후 생존 용이성, 정부의 독과점/담합 규제 효과, 해외시장진출 용이성, 정부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효과,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투자유치 용이성, 상장·M&A를 통한 투자회수 용이성, 정부지원금의 창업자금 조달 용이성, 창업보육센터 입주 용이성, 창업보육센터 입주 효과, 외부로부터 기술이전 용이성 등의 창업환경 조성이 기업가정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기업가정신이 조직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기업가정신 교육효과 및 창업환경이 창업유형(생계/기회형)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양질의 기회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및 우호적인 창업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적인 창업 확대가 아닌 창업 생태계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유형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단위의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지수 조사인 글로벌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터(GETR)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별 기업가정신 교육효과, 개인 및 조직 기업가정신, 창업 환경, 창업 유형(생계/기회형) 수준을 비교한 실증적 연구로써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연구진을 중심으로 수행된 기업가정신 지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충실하고 의미있는 데이터 조사를 위한 방향성 및 보완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별 비교 데이터를 통해 국내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주기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 및 각종 규제철폐를 통한 우호적인 창업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강조하였다. 아울러 WEF의 국가 경쟁력 지수를 통한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제도적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의 활성화 및 혁신적 창업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GETR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 비교 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외국 데이터 중심의 기업가정신 기준이 아니라 국내 기업가정신 환경 및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실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의미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GETR에서 수행중인 기업가정신 지수 구성요소 중 일부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향후 GETR의 다양한 변수와 자료를 적용한 추가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김용태(2017). 창업교육, 기업가적 역량 및 태도가 대학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2), 13-20.
- 이윤준·김영환·김석관·배용호·임송·고명주(2014). 기업가정신의 국제 비교를 통한 창업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4(8), 1-242
- 양준환(2017). 창업역할모델과 기업가정신 교육이 한국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1-11.
- 정구혁·이병현(2017). 기업가정신 국제조사(GETR)의 개선방안 연구: 기업가정신 하위차원 검증과 환경지수의 영향 고찰 연구, *한국창업연구*, 12(3), 172-195.
- BABSON et al(2016).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5/2016 Global Report*,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London.
- Chung, G. H & Lee. B. H.(2017). How to Improve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12(3), 172-195.
- GEDI(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Washington, D.C., USA.
- Kim, Y. T.(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12(2), 13-20.
- Lee, Y. J., Kim, Y. H. & Kim. S. K. & B. Y. H. & Lim. S. & Ko, M. J.(2014).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and Its Implication on Koreaa Start-up Environm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Policy Research Report* 2014(8), 1-242.
- OECD(2016).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OECD Publishing, Paris.
- Yang, J. H.(2017). The Effect of Role Model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Juvenile, 12(2), 1-11.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Ecosystem Activation: Based on GETR Data*

Park Jae Hwan**
Kim Bong Moon***
Kim Yong Tae****

Abstract

Recent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recession of employment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revitalize entrepreneurial ecosystem by presenting entrepreneurial spirit and creative talent development as national top priority strategy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data from the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 (GETR), which has been conducted by the Venture Small Business Division and the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since 2015, the study will be conducted by the entrepreneurs of 10 countries in 2015 and 2016. The components of mental ecosystem were compared and verified. The results showed that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and entrepreneurial environment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entrepreneurship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 Also,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entrepreneurial environment, individual entrepreneurship.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type (livelihood / opportunistic entrepreneurship). In this study,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lifelong educ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Korea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entrepreneurship which is increasing quantitatively. Finally W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favorabl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offer some suggestions.

Keywords Entrepreneurship Ecosystem, Entrepreneurship Education Effect, Entrepreneurial Environment, Entrepreneurial Typ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funded by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17).

** First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jaypark@cau.ac.kr

*** Co-author, Head,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Support Team, kbdoor@nrf.re.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ytkim@nsu.ac.kr